

최근 들어 청소년 책 출판을 시도하는 출판사가 많아지고 있다. 청소년을 주 독자로 한 책이 많이 팔리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꾸준히 나가 손해는 안 본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두고 대학 입시제도의 변화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게 만드는 게 아니냐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너무 성급한 것이다. 한국의 대학입시는 하나의 잣대로 수십만의 아이들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별로 변한 것이 없다. 대학입시는 여전히 아이들을 교과서와 참고서, 문제집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하고 있고, 여전히 청소년 출판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주범이다. 이것은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독서량이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독서량에 훨씬 못 미친다는 사실 하나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청소년도서가 그나마 조금씩 팔리는 것은 중·고등학교의 학교도서관 예산을 정책적으로 확대하고 독서를 국어 등 과목의 수행평가에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자발적 구매에 의해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기보다는 학교교육 내에서의 정책적 강제로 최소한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대학 학생선발제도가 질적으로 변화하고 교과서 제도가 개방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청소년 독서문화가 활성화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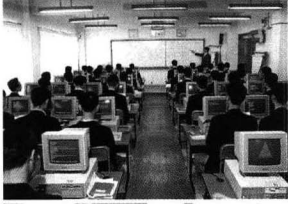
한국의 학교교육은 학부모나 학생들이 그걸 인내하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최악의 상태에 와 있다. 청소년들은 책 한 권 읽을 여유가 없을 정도로 입시에 시달리고, 학부모들은 생활을 위협받을 정도로 무리하게 사교육비를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웬만한 대학에 들어갔다 해도 졸업하고 나면 대부분 취업이 되지 않는다. 도대체 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언제까지 우리 사회는 이런 학교교육을 용인할 것인가? 한국의 교육은 도대체 왜 그런 극한상황에 이르게 된 것일까?

누구나 느끼는 것이겠지만 오늘날의 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직업구조 역시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예컨대 과거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교육적 문제의식은 지금의 중고생들이 사회에 나가 활동하는 5년 뒤에는 지금 있는 직업이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직업이 생기기도 해서 직업군의 60퍼센트 이상이 바뀔 것이라는 예측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학교교육이 이러한 변화로부터 지나치게 괴리되어 있어 아이들을 미래의 직업활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클린턴 행정부는 이 학교교육의 재구조화를 위해 “학교교육으로부터 직업사회로의 이행을 돕기 위한 연방법”을 제정하고 주 정부를 비롯한 전 사회를 동원하는 차원에서 학교교육의 재구조화를 임기 동안 추진하였다.

한국의 경우 산업구조와 직업구조의 변화는 미국에 비해 더 빠를 수밖에 없다. 저임금을 바탕으로 급속도로 성장해 오는 중국이 국제분업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강요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학교교육은 미국에 비해 훨씬 폐쇄적이어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 결과 학교교육은 사회변화로부터 극단적으로 괴리되었고 사회의 역동성을 죽이고 변화를 가로막는 앙시앙레즘으로 화하였다.

전문가 칼럼

청소년 영역 없는 한국출판은 기형,
출판인들이여 학교교육을 이야기하라



대학입시는 여전히 청소년출판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주범이다. 청소년 독서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 학생선발제도가 질적으로 변하고 교과서제도가 개방되어야 한다.

한국의 학교교육은 박정희 정권 이래 “근대의 대량생산 산업체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대량으로 육성하는 교육체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교육체계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경전화된 교과서와 획일적 대학입시제도이다. 단순노동 내지 반복된 노동에 요구되는 표준지식을 담고 있는 것이 교과서이고, 이 교과서의 표준지식 암기 정도를 유일한 잣대로 수십만의 학생에 서열을 매기는 것이 획일적 대학입시 제도이다. 이러한 교육체계 속에서는 교과서 이외의 독서는 별 필요가 없는 것이 된다. 이러한 속에서 미미하게나마 독서문화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었다면 일제강점기에 지식인사회에 뿌리를 내린 독일 교양주의의 전통이 갖는 영향력이었을 것이다. 이 독일 교양주의는 엘리트주의 성격이 강한 독서문화를 만들어냈는데 이제는 그 영향력이 소멸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식정보화사회는 창의성과 다양성을 요구한다. 한국의 현 교육체계는 이런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학교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창의성이나 다양성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대전환이 불가피한 시기이다. 어떤 방향으로의 전환인가?

우선 한 가지의 잣대로 모든 아이들을 평가하는 대학입시를 바꾸어야 한다. 아이들이 선택하는 다양한 진로희망이 100가지라면 그 100가지의 길을 100가지의 잣대로 평가해 주는 대학 학생선발제도가 필요하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아이들이 선택한 진로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에세이나 심층면접에 큰 비중을 주어 학생을 선발한다든지 하는 것 말이다. 두 번째로 획일적인 교과서 제도를 자유롭게 열어 다양한 지식 정보들이 수업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면 독서는 취미나 교양 차원이 아니라 학교교육에서 중심적이고 필수적인 것으로 자리잡아갈 것이다. 학생들이 진로희망에 따라 단계별로 자기 발전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청소년독서가 풍부하게 나와 주어야 한다.

한국의 출판은 청소년 영역이 비어 있는 기형이다. 비어 있다기보다 공룡처럼 비대해진 입시산업이 청소년 출판을 대신하고 있다. 입시산업을 몰아내고 건강하고 다양한 청소년 출판이 그 자리를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출판은 왜곡과 한계를 피할 수 없다. 이제 출판인들도 학교교육의 양시양례증을 향해서 발언을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김진경**

글 | 김진경

이 글을 쓴 김진경은 1953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나 서울대 국어교육과 및 같은 대학원 국문과를 졸업했다. 시인이자 소설가인 그는 <민중교육지> 사건으로 해직과 옥고를 겪으며 우리나라 교육운동을

위해 헌신했다. 우리 정서에 맞는 한국적 판타지 동화를 쓰기 위해 신화연구에 몰두하는 한편, 신화에 관심 있는 작가들과 함께 '신화학교' 모임을 이끌고 있다. 작품으로 시집 <갈문리의 아이들> <광화문을 지나며> <우리 시대의 예수> <슬픔의 힘> 등이 있으며,

장편 소설 <이리>, 어른을 위한 동화 <은행나무 이야기>가 있다. 어린이를 위한 책으로는 <한울이 도깨비 이야기>와 <목수들의 전쟁>, 그리고 <김진경 선생님의 한자동화> 시리즈가 있다.